

해외 어려운 이웃도 내 가족처럼... 의술의 참된 가치 빛내다



원광학원 연합 의료봉사단이 네팔 포카라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봉사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무더운 날씨 속 의료봉사 벌여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 받아

지난 16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허종규) 산하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과 원광한국의과대학방병원, 원광치과대학병원 등 6개 기관은 원광대병원의 설립 이념인 재생의 세의 정신에 입각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기 위해 8박 9일 일정으로 의료 오지 국가인 네팔로 출발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 인근 도시 포카라 현지에 도착한 64명의 의료봉사단원은 24일까지 해외의료봉사, 헬스케어 활동을 펼치는 대장정에 나섰다.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은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안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구강의학과, 피부과, 한의학과 등 전문 의료인과 헬스케어(안경처방, 피부미용,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25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장학금, 학용품, 티셔츠 등을 구비했다.

해외의료 봉사단이 도착하자 40°C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밝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현지인들이 마을 입구까지 마중나와 환영 인사를 하며 연신 "나마스떼(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이 네팔 포카라 현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는 소식이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뜨거운 환영을 받은 원광학원 연합 의료봉

사단은 준비했던 장학금, 학용품, 티셔츠, 과자 등 아이들의 선물을 전달했다.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연신 "던에바드(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편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은 온몸이 땀에 젖은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 대학생들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아이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 문화체험, 피부 미용, 헬스케어 등 의료봉사와는 또 다른 한국 알리기에 힘을 쏟았다. 의료봉사단은 네팔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펼치는 한국의 전통 문화 '강강술래'를 선보여 국적을 초월한 화합의 장이 이뤄지기도 했다.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은 네팔 현지 주민들과 아동 4524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해 현지 주민들에게 뜨거운 감사 인사를 받았다.

원광대학교병원 윤권하 병원장은 봉사 활동 기간 중에 만난 육손의 네팔 소녀 Anuja Pariyar(어누자 빠리알, 16세)가 심장에까지 의학적 문제가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향후 5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한국 입국이 성사 될 경우 원광대병원에서 무료 수술 치료를 해 주기로 약속해 따스한 감동도 전해졌다.

원광학원 해외의료 봉사단 의료분과장 김학렬 원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합 의료봉사 활동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네팔 현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의료봉사 활동 기간 동안 단 한명의 주민과 아이들에게 많은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봉사단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와 함께 진료를 마친 30대의 네팔 여인은 "한국에서 오신 원광학원 연합 의료봉사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권하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지난 2002년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어 네팔은 올해까지 총 15차례 의료봉사를 펼친 지역이다. 이번 네팔 해외의료봉사 활동은 본원의 설립 이념인 재생의세의 실현과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향한 사랑 나눔 실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원과 네팔의 교류 협력에 앞장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지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부겸 원광학원 상임이사는 "네팔 봉사활동은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봉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원광학원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적 시각에 맞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①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원광학원 연합 해외의료 봉사단 주요 보직자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알리기에 나선 모습.
- ② 김부겸 상임이사가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③ 윤권하 원광대 병원장이 해외의료봉사 활동 중 소아 환우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
- ④ 네팔 포카라 현지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